

‘목포 일렉트로 마트’ 전남 최대 가전매장 우뚝

드론존·1인미디어관 등 특화매장 구성 ‘인기’
이마트 목포점 가전 매출 전년비 95.6% 급증

이마트 목포점 일렉트로 마트가 광주 전남 최대 가전전문매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13일 이마트에 따르면 일렉트로마트 목포점은 지난 4월 25일 목포점 2층에 1,400㎡(420여평) 규모로 오픈했다.

일렉트로마트는 대형가전, 소형가전, 디지털가전, 완구 등 모든 가전상품을 아우르면서 드론 존, 액션캠 매장, 피규어 전문존, 3D프린터존 등 특색을 갖춘 상품존을 함께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형 가전 전문매장이다.

일렉트로마트가 오픈한 이후 고객유입효과로 목포점 가전 매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오픈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목포점의 가전 전체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5.6%, 고객수는 65.6% 증가했다.

이는 목포점 일렉트로마트의 ‘체험형 가전 매장컨셉’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 일렉트로마트는 기존보다 한층 진화된 드론형 매장을 선보이는 동시에

1~2인 가구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새로운 상품존을 선보였다.

▲지역 최대 드론매장·1인 미디어관 등 특화된 매장구성

목포 일렉트로마트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드론·카메라 매장(20여평)을 구성했다.

이는 전남도가 국가드론산업 중심지로 전국 최대규모의 비행시험 공역(직경 22km)과 항공센터, 국가종합비행시험장(활주로1.2km) 등 드론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유·아동과 일반인의 취미 및 여가목적의 완구형 드론 ZONE과 항공촬영 및 생산·물류 정보분석의 전문가형 드론 ZONE 등 총 15종의 드론과 세계 1위의 드론 제조업체 중국 DJI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게이밍존’, ‘1인미디어 전문숍’ 등 새로운 ‘체험형 매장’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PS4 등 콘솔게임부터 PC 게임 전용



지난 4월 오픈한 이마트 목포점 일렉트로 마트가 지역 최대 가전 전문매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마우스/키보드 등 다양한 PC 게이밍 소품까지 게임에 관한 모든 상품을 한데 모아 매장에서 직접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게이밍 존’ 뿐만 아니라 마이크, 집벌, 조명 등 100여종의 방송촬영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직접 1인 방송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1인 미디어 전문숍’도 오픈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혼족 가전이 인기를 끌면서 ‘Single Life’ 특별매장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에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1~2인 가구를 타겟으로 ‘1인 라면포트’, ‘미니 건조기’, ‘소형 냉장고’ 등 일렉트로마트의 다양한 혼족 가전 상품이 한데 모여있어 관련상품을 윈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다.

아이디어관도 특화된 뷰티 가전매장이다.

인싸들의 아이템이란 모토로 현재 SNS에서 유행하거나 독특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는 상품들로 구성됐다.

예를들어 LED 테라피 마스크, 캔디매직 고데기, 라인프렌즈 충전식 휴대용 헤어

어플, QCY T1 블루투스 이어폰 등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다.

▲일렉트로마트 가전 ‘인기’

일렉트로마트 오픈 100일 동안 인기 품목은 일렉트로마트 선풍기와 에어프라이어, 공기청정기, 애플 Airpod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렉트로마트 선풍기와 에어프라이어는 기능에 충실하고 부가 기능을 최소화해 동일 스펙 대비 가격을 20~30% 가량 낮춘 실속 가전으로 인기가.

또한 기름 없이 뜨거운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음식을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증가와 고기나 생선을 구워도 냄새와 연기가 거의 없다는 장점으로 주방가전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마트 김상용 목포점장은 “차별화된 상품구성과 콘텐츠를 갖춘 가전전문매장인 일렉트로마트를 목포에 오픈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민들의 니즈와 니즈가 될 수 있도록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을 접할 수 있는 첨단 가전매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6월 시중 통화량 6.7% 늘어

정기 예·적금이 불어나고 채권형 펀드 자금이 늘면서 시중 통화량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9년 6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6월 통화량(M2)은 2,799조2,480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

M2란 현금, 요구불예금, 각종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를 말한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6.6%였던 지난 4월, 5월보다 소폭 상승했다.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보면 M2는 2,798조 7,922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 늘었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5월 0.4%보다 상승했다.

계절조정계열 M2를 상품별로 보면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만기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9조3천억원 증가했다. 채권형 펀드 자금이 유입되며 수익증권은 3조 4,000억원, 2년 미만 금전신탁은 1조9,000억원, 요구불예금은 1조1,000억원 늘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이 4조 7,000억원 늘었고, 기업 부문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초저위험 상품은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해당된다. 또 1억원의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천 만원’이 추가되고 10억원 이상인 현 자산 기준은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잔고 기준(5,000만원)만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가 37만~39만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벅스, 일본산 차 발주 중단

일본 상품을 거부하는 ‘보이콧 재팬’ 바람이 거센 가운데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일본산 제품 발주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온 ‘스타벅스 오리가미 베란다 블렌드’와 ‘비아 말차’ 등의 제품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13일 “상품 형태로 수입하는 오리가미와 비아 말차는 글로벌 라인업 상품으로 제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잠정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수입량이 미미했고, 현재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오리가미’ 시리즈는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추출식 커피 제품이다. 일본어로 종이접기라는 뜻의 오리가미가 가리듯, 커피를 내려 마시기 좋도록 부착한 종이 틀이 특징인 제품이다.

‘맥킨지 기업가치평가’ 교육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맥킨지 기업가치평가’ (Mckinsey Valuation) 교육과정을 연다. 기업가치평가 분야의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맥킨지 기업가치평가’를 기본 교재로 가치평가 실무를 교육한다. 수강 신청은 9월 3일까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금융권 채용 ‘큰 장’ 선다

27~28일 서울서 공동채용박람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오는 27~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공채를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과 금융공기업, 금융협회 등 총 60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해 채용상담과 현장면접 등을 실시하고 금융권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직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면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기간을 이틀로 운영하고, 서울 박

람회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 인재들이 현장면접과 채용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면접 채용관을 부산, 대구, 광주, 제주시 대상으로 운영한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해야 한다. 다만 채용상담의 경우 현장 등록을 통해서도 일부 참여할 수 있다.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GI서울보증보험은 구직자의 연령, 학 교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한다. 30% 이상에게 하반기 공채시 1차 서류전형 면제혜택(서울보증은 가점 부여)을 줄 예정이다.

현장면접 신청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더 많은 구직자가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인당 1개 금융회사로 지원 기회가 제한된다.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한다

중진공 광주본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수출 스타기업(자사 쇼핑몰) 구축·육성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온라인수출 스타기업(자사 쇼핑몰) 구축·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최대 4,000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과 우수기업에는 추가 보조금 지

급, 내년 사업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진공 지원으로 키워드 광고, 검색엔진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배너 광고 등 쇼핑몰 홍보를 실시해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구축·육성사업 기간 동안 47개 기업이 참여해 총 411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현재 5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15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베뉴 X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시승 이벤트

현대자동차는 SUV 베뉴 출시를 기념해 4박 5일간의 베뉴 시승과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참가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베뉴 X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시승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는 응모 고객 중 각 차수별 40명, 총 80명을 선정해 4박 5일 동안 베뉴

의 상품성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현대자동차 시승센터 및 영업점,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베뉴를 시승한 뒤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www.hyundai.com)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한국전력 등 5개 공기업의 상임 감사위원들이 ‘감사업무 교류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등 5개 공기업, 감사역량강화 협약

전문교육·청렴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13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감사역량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교차(합동)감사를 위한 전문분야 인력지원 ▲반

부패 청렴문화 정착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각 기관 감사인들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통한 업무 추진방향 설정과 상호 협업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증

진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정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가치 제고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은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증진과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가치 제고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서미애 기자

광주 풍향동 재개발아파트 매머드급 주목

2,949가구 7,000여억 사업규모 최대 포스코·롯데·현대산업등 건설사 관심 분양가 규제·공급과잉 등 변수는 많아

광주 북구 풍향동 일대에 2,900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풍향동 600-1번지 일대(구역면적 16만4,000여㎡)에 2,949가구 규모의 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광주교육대학교 부근의 재개발 예정지역은 지하철 2호선 역사와도 인접할 예정이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다.

현재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옥탑 광고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고 등을 통해 조합원들과 직간접 접촉을 하고 있다.

3,000가구에 달하는 재개발 아파트는 광주에서는 최대급이다.

지역건설업체는 사업비가 7,0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활용한 서구 화정현대힐스테이트(3,700여가구) 재건축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알려졌다.

이처럼 ‘역대급’ 재개발 아파트 사

업이 순탄하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풍향동 A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에 재개발정비구역 내 주택 가격이 2~3배 오를 정도로 관심이 크다”며 “대기업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가 남아있고,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잘 해결돼야 착공까지 순탄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광주 중전 건설업체 관계자는 “광주 지역의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양가 규제 목소리와 북구, 동구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며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